

스티로폼(PSP) 식품포장용기 분리수거 재활용한다

9월 9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에서 시범 실시

1999년 9월 9일. 이날은 9자가 5개나 겹친 길일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라면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가 분리수거 재활용되기 시작한 날이다. 그 동안 스티로폼(PSP) 식품포장용기는,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포장재 및 과일 생선 상자 등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폴(EPS)과 같은 재질이면서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이 안되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짐으로써 자원 낭비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의 분리수거 재활용을 위하여 민·산·관이 하나로 뭉쳐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서울시 양천구청,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체인스토아협회가 참여하였다. 민·산·관이 하나가 된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난 9월 9일 양천구 재활용 집하장에서는 참여 기관 임직원 및 양천구의회의 의원, 지역 주민, 시범 회수점 대



라면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PSP) 식품포장용기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 양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분리·회수 재활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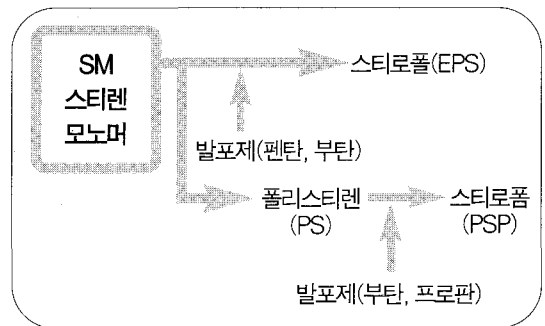
이번 시범 사업의 추진 방향,

주요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편집자주)

생산 공정



사용 용도

- 스티로폴(EPS)
가전 완충재, 농수산물포장상자, 단열재 등
- 스티로폼(PSP)
컵라면 용기 등의 식품포장용기

표, 시범 회수 차량 기사, 청소업체 대표 등 300여 명이 모여 의미있는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추진방향

이번 시범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면용기 등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의 재활용을 위해 민·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것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 달성 기반 마련 및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의 재활용 가능 품목 지정을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시범 사업은 1999년 9월 9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1년동안 양천구청 일원의 전 가정 및 60여 시범회수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분리 회수 재활용 품목은 스티로폼(PSP) 재질의 라면 용기, 농수축산 식품 받침접시, 도시락 용기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것은 양천구청에서 분리수거하고 시범회수점에서 수집된 것은 전용 회수 차량으로 수거하여 양천구 자원재활

용센터에서 감용, 잉고트를 생산 판매하게 된다.(표1)

시범 회수점은 양천구청 내 편의점, 수퍼마켓, 도시락 제조 판매점, 학교 매점, 백화점 등 60여 개를 지정하였으며 지정점에 전용 회수함 및 전용 회수망(점포 실명제)을 비치, 분리수거하게 된다.

주요사업내용

깨끗이 분리 배출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의 재활용 시범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민·산·관이 힘을 합하여 실시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각 참여단체는 발대식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양천구청에서 스티로폼(PSP) 식품포장용기 회수, 재활용 사업 공동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고 7가지의 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사업내용

1. 스티로폼의 깨끗한 분리 배출 홍보
2. 양천구 스티로폼 재활용 설비 보강

표1. 회수 재활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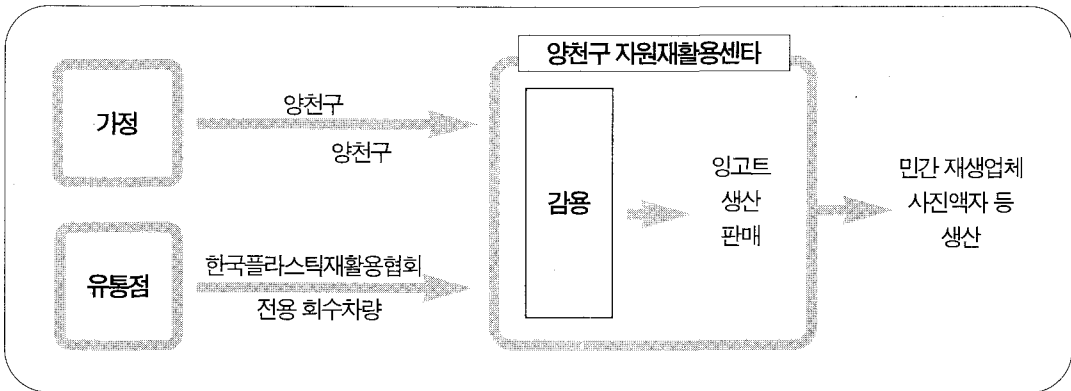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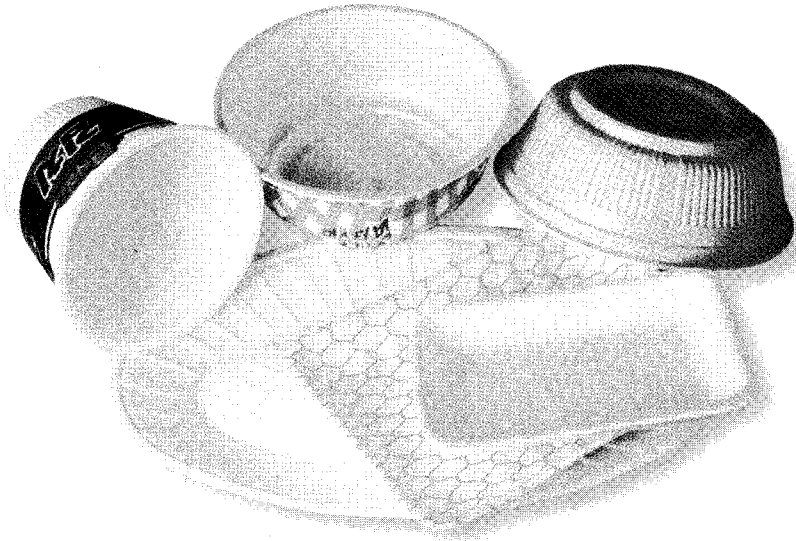


표2. 회수·재활용 공동 추진 각 단체별 역할

소비자 시범회수점	소비자단체	유통단체및 생산자 단체	지자체
이물질 분리 후 분리 배출	분리 배출 계몽 소비자 의식 조사	분리 배출 전용차량 회수	분리 배출 홍보 회수·재활용



3. 시범사업장에 전용 회수 차량 운행
4. 회수된 스티로폼은 최대한 재생원료로 생산
5. 포장용기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6. 양친구 재활용 집하장(스티로폼 재활용 설비)을 시범 전시장으로 활용
7. 시범 사업의 평가

이와 아울러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 단체의 노력은 물론 주민 및 일반 소비자들의 정성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분리 배출 시,

- 라면 용기에 붙은 은박지 뚜껑은 완전히 제거
- 용기 내의 잔재물은 모두 비우고 내부를 깨끗이 닦아서 배출
- 가정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일에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유통점의 경우 점포 내에 비치된 회수함에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대효과

이번 양친구청의 회수, 재활용 시범 사업으로 생산되는 재생원료(잉고트)는 연간 180톤(식품포장용기는

20%)으로 이의 경제적 효과는 2억 7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사용 절감(100l 용 18만 개)과 이에 따른 3m 높이의 쓰레기 매립지 1천8백 평 사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 원료 판매 및 사진액자 생산을 통해 약 22억1천4백40만 원의 수입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술적인 효과보다 양친구청의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스티로폼 식품포장용기의 분리·회수 재활용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어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을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효과가 될 것이다. ㉠



시범 회수점에 부착하는 스티커